

책임자

동향분석실
김세중 실장(3775-9059)

작성자

김세중 연구위원(3775-9059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2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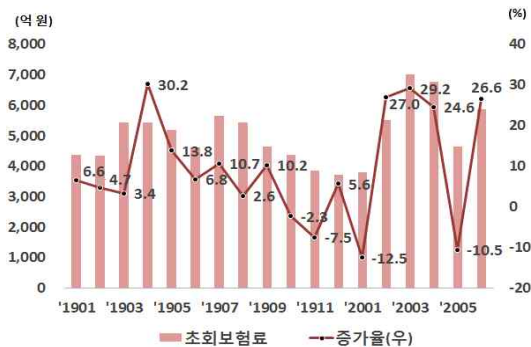
보험연구원, 『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』 CEO Report 발간

“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 시장의 양호한 성장 불구,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성장성 하락 및 수익성 악화 대비해야”

- 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은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, 개인 생명보험 보험료 및 해지율 추이, 판매채널 등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함
-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시장(일반계정 사망, 연금, 저축보험)은 전년 동기 대비 고성장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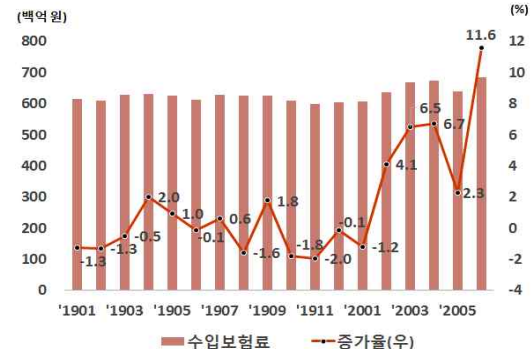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월별 개인 생명보험 초회 및 수입보험료 추이

〈초회보험료〉



주: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〈수입보험료〉



주: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
자료: 보험회사 업무보고서

-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 영업채널의 영업력 악화, 보험수요 위축 등 개인 생명보험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개인 생명보험시장은 예상과 다른 고성장을 기록함

-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시장의 고성장은 사망보험의 절판 마케팅 효과, 방카슈랑스 채널의 저축보험 판매 확대 등에 기인하며, 해지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됨
 - 사망보험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절판 마케팅 효과로 2월과 3월 전년 동월 대비 고성장함
 - 2020년 상반기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보험 판매가 급증하였으며, 이는 시중 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 예·적금 상품의 경쟁력 약화,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로 인한 펀드 판매 위축 등에 따른 것임
 - 한편, 연금보험의 경우 저축보험과 달리 4월을 제외하고 보험료 규모가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음
 - 2020년 상반기 월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사망보험, 연금보험, 저축보험 모두 3월 해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과 5월에는 예년 수준보다 낮아짐
- 2020년 상반기 개인 생명보험시장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존재함
 -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,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도 점차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개인 생명보험 가입여력 축소에 대비하여 신시장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
 -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공격적인 저축보험 판매 확대가 향후 수익성 악화로 돌아올 수 있음

첨부: CEO Report 『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』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<http://www.kiri.or.kr>